해양수산부	보도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6. 11. 10.(화) 10:00
(지면) 2026. 11. 10.(화) 석간
배포 2026. 11. 09.(월) 14:00

2026년도 도선수습생 13명 선발

- 166명 응시해 약 13대 1의 경쟁률 기록, 11월 중 근무 항만 배정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신규 도선사* 확보를 위해 실시한 202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최종 합격자** 13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.

* 무역항에 입·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입·출항과 항로 통과를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, 2026년 10월 기준 전국 항만에 252명이 근무 중

** 합격자 평균연령 46세(최연소 35세, 최고령 55세)

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「도선법」에 따라 총톤수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으며, 올해는 166명이 응시하여 약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.

시험은 필기와 면접으로 진행된다. 필기시험은 지난 10월 17일에, 면접시험은 11월 7일에 각각 실시되었다. 최종 합격자 명단은 11월 10일(화)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(www.mof.go.kr)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(www.seaman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이번에 최종 합격한 13명은 11월 중 근무할 항만(도선구)을 배정받아, 해당 도선구*에서 6개월 간 200회 이상 승선하며 실무 수습을 받는다. 이후 내년에 실시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를 발급받으면 정식 도선사로 활동할 수 있다.

* 도선구별 배치 예정 인원 : 부산 1명, 인천 1명, 여수 2명, 마산 1명, 울산 2명, 군산 2명, 목포 1명, 대산 2명, 평택 1명

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“도선사는 선박의 안전한 입·출항을 돕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.” 라며, “이번에 선발된 도선수습생들이 충분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안전한 항만 운영에 기여하는 도선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.” 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	정동원 (051-773-5770)
		담당자	사무관	송은정 (051-773-577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